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나라의 40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드는 시민단체의 대표정신인 <시민의식물>의 창간 13주년을 시민의식물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업적과 가지고 있는 값진 의미를 돌이켜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편이 많지 않고 있는 조국의 의리는 그로직이 없어졌는데 들어선다고 한다. 임무라고는 하나도 없고 같이 사회각부분 활동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알리기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민사회가 체리처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물의 창간을 위하여 감사드리고 본다.

시민의식물이 시민사회운동의 여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들으면 우리 시민운동의 맥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록보관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주관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으며 해마다 <한국시민단체연감>을, 3년마다 <한국시민사회총감>을 그리고 2004년에도 <한국시민사회 15년사 1989~2002>를 펴내서로 시민사회의 활동성과 관련자들을 기록을 정리해 놓고 있다.

특히로 시민의식물로 시민사회운동의 관계참가자를 알리고 있다.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적 활동의 장으로서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를 전하는 입장을 밝혀내며 대외로는 시민들의 영향력이나 사소한 노력으로의 변화와 움직임을 적시어 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시민의식물이 되고 있는 희망의상을 만들기위한 각부분의 주체러디임운동에 대한 관심이 20여 이다.

또한내 지경한리만 시민의식물과 시민사회운동이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의지를 투합하게 하니까 고통을 나누게 하니까 하면 입부사회와 왜곡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을 시정하고 견제해 내면서 시민운동의 공익을 위한 투쟁을 펼쳐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총체적 위기상황을 직면해내기 위해서는 사회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변혁은 주류에서부터 주변부에서 일어나게 되어있다. 우리의 사회변혁의 주역은 지금까지 통치권과 권력의 대상의 위치에 따라 배정되어 온 주류에서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민주주의의 개량>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이란 자기책임과 행실이행 그리고 정책제안능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을 형성한 시민사회가 제각각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제대로의 시민행동정신을 가지기 쉬운 관계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에 입조하고 있는 액티브인신물로 <관공인비> <남공여비> 그리고 <국공지비> 현상이 사회운동주체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비> 현상을 관여하고 관리인간이, 애용과 남용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의 균형은 이루어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한 쪽의 힘을 키워내야만 한다. 이 관계이다.

시민의 신문이 세상을 바꾼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나라의 70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드는 시민운동의 대표정론지인 <시민의 신문>의 창간 13주년을 <시민의 신문>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업적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 조직이 담지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는 그 조직이 없어졌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일부라고는 하나 오늘과 같이 사회 각 부문, 특히 언론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시민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신문>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본다.

<시민의 신문>이 시민사회운동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로는 우선 시민운동의 맥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기록보관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주간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으며 해마다 <한국시민단체연감>을, 3년마다 <한국시민사회총람>을, 그리고 2004년에는 <한국시민사회15년사 1987~2002>를 펴냄으로써 시민사회의 활동과 관련자료를 집대성해놓고 있다.

둘째로 <시민의 신문>은 시민사회운동의 관제탑 기능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적 토론마당으로서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견해와 입장을 밝혀내며 때로는 시민운동의 방향제시 또는 새로운 도전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적시에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시민의 신문>이 선도하고 있는 희망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 부문의 뉴패러다임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 예이다.

또 하나 지적한다면 <시민의 신문>은 시민사회운동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의지를 투합하게 하며 고충을 나누게 하는가 하면 시민사회에 대한 일부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시정하고 견제해내면서 시민운동의 공익을 위한 주장을 펴내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사회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변혁은 주류에서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일어나게 되어있다. 오늘의 변혁은 지금까지 통치와 관리의 대상의 위치에 자리매김 되었던 주변부인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혹은 <민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의 신문>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시민이란 자기결정권과 책임이행 그리고 정책제언능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로 형성된 시민사회가 제대로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시민혁명과정을 거치지 않은 까닭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역사적인 산물인 <관존민비> <남존여비> 그리고 <국론지비> 현상이 사회운영주체 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비>현상을 걷어내고 관과 민 간의, 여성과 남성 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한 측의 힘을 키워내야 한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건전한 민주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시민사회육성법> 제정을 비롯하여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위한 세제혜택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민의 신문>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과제의 이행 역시 <시민의 신문>이 앞장서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시민의 신문>과 시민사회는 동전의 양면으로 상호협력의 필요하다. <시민의 신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지난 13년 동안 우리의 시민사회운동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이끌어온 <시민의 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 믿음이 성취되기를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 기원한다.